

24-02-01

**2023**년

영종도 저어새 등 철새 모니터링 보고서

2024. 03.

공동주관 : 인천녹색연합, (사)한국물새네트워크

협력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감수 : 이기섭((사)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 조사배경

---

- 영종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와 다양한 저서 생물의 서식지로 그 가치가 높으나 불법 칠게 잡이 어구, 준설토 투기장, 영종2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매립, 훼손 위협에 처해왔다. 시민들은 영종갯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
-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국의갯벌(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등 핵심갯벌을 추가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된 만큼, 인천갯벌도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인천갯벌이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 가치가 높고, 세계적인 관문이 위치한 인천 공항과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영종을 비롯한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오해로 등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영종도를 중심으로 저어새 등 철새 모니터링을 통해 철새 서식지로서의 영종갯벌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려내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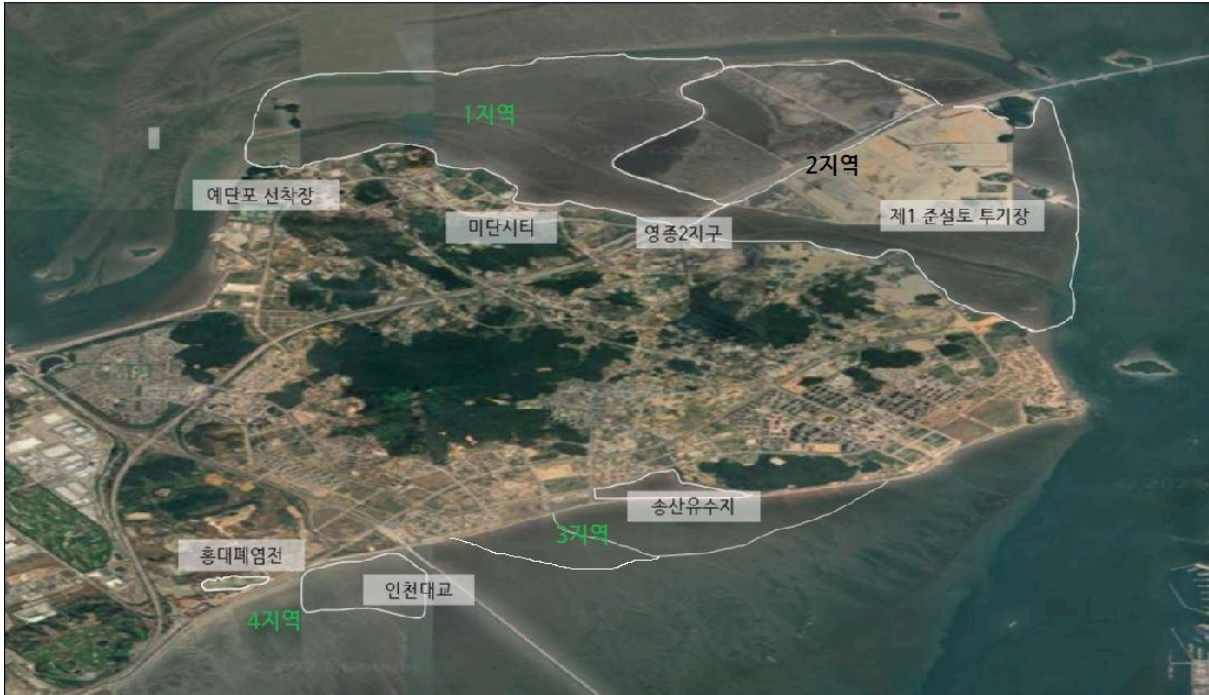
## 조사 수행 방법

---

- 조사 기간 :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로 총 18회 조사를 했다. 만조를 기준으로 조사 일자를 선정했다.

- 조사 지역과 조사자

구분	조사 지역	시민과학자
1지역	예단포 선착장, 미단시티	김경숙, 김옥희(故), 이영희
2지역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영종 동측	강윤자, 강인숙, 김복순
3지역	송산유수지와 영종남단 갯벌	임재균, 장선희, 함형복
4지역	홍대염전과 인천대교 우측 갯벌	신정은, 이연경, 전정옥



○ 조사 핵심종 : (사)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대표의 조연을 토대로 조사 대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7종을 핵심종으로 선정했다. 핵심종 이외의 관찰종도 기록했다.

번호	학명	국명	멸종등급
75	<i>Platalea minor</i>	저어새	I 급
93	<i>Egretta eulophotes</i>	노랑부리백로	I 급
157	<i>Haematopus ostralegus</i>	검은머리물떼새	II 급
184	<i>Limosa lapponica</i>	큰뒷부리도요	II 급
188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알락꼬리마도요	II 급
201	<i>Calidris tenuirostris</i>	붉은어깨도요	II 급
234	<i>Larus saundersi</i>	검은머리갈매기	II 급

○ 조사방법 : 조사 지역을 4개로 나누어 물새류 관찰이 쉬운 만조 3시간 전부터 만조 시기까지 진행했다. 필드스코프와 쌍안경을 이용했으며, 정점 조사법과 선 조사법을 병행했다. 각 지역별 월 2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되도록 같은 날 조사를 진행했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영종도 갯벌 전체가 아닌 동남쪽 특정 영역으로 한정했다.

## 조사결과

### ○ 조사 핵심종 도래 현황

지역별로 달마다 2회 진행했으며, 2회 중 최대 개체수로 기록했다. 저어새 최대 609개체, 노랑부리백로 최대 40개체, 검은머리물떼새 최대 257개체, 큰뒷부리도요 최대 683개체, 알락꼬리마도요 최대 2,784개체, 붉은어깨도요 최대 250개체, 검은머리갈매기 최대 300개체를 확인했다. 월별 최대개체수 합은 17,528개체이다. 같은 개체를 중복 카운트 할 가능성이 있어 월 2회 조사 개체수를 합하지 않고, 그 중 최대 개체수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최대 개체수는 최소 이 개체 이상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 개체수	월별 최대개체수 합계
저어새	29	40	186	236	147	609	167	28	3	609	1,445
노랑부리백로	1	1	2	7	7	40	10	0	0	40	68
검은머리물떼새	68	42	35	97	122	257	132	10	0	257	763
큰뒷부리도요	577	683	0	62	163	409	215	0	0	683	2,109
알락꼬리마도요	2,410	2,130	250	2,784	1,468	2,309	965	73	0	2,784	12,389
붉은어깨도요	123	250	0	0	0	37	11	0	0	250	421
검은머리갈매기	300	32	0	1	0	0	0	0	0	300	333
합계	3,508	3,178	473	3,187	1,907	3,661	1,500	111	3		17,528

### ○ 전체 관찰종 도래 현황

핵심종 7종(\*) 이외에도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두루미,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 물수리, 잣빛개구리매, 새매, 매, 큰말똥가리, 쇠제비갈매기를 확인했다.

총 82종을 확인(아래 박스 참고)했는데, 이는 갯벌을 중심으로 한 습지에서 주로 확인한 종수로, 내륙 지역과 조사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연안 습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종을 영종 일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거라 추정한다. 관찰 누적 총 개체수는 165,047개체(n=18, 1회 평균 9,169개체, 범위 1,785~37,451개체)이다. 다만, 핵심 7종은 최대 개체수만 기록하는 방식과 달리 전체 개체수는 월 2회 조사 개체수 전체를 합산한 것으로 개체 합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관찰한 82종 중 물새류는 62종으로 각 종의 최대 관찰수를 기준으로 약 5만마리(49,608, 미확인 물새류 약 1만3천마리 제외)였다. 이는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기준 2만마리를 훨씬 초과하는 개체수이다.

(1급)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꼬리수리, 두루미

(2급)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잣빛개구리매, 새매, 매, 큰말뚝가리,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비법정 보호종)

괭, 쇠기러기,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오리, 청머리오리, 흉머리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발구지, 쇠오리, 흰죽지, 비오리, 바다비오리, 논병아리, 뿔논병아리,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왜가리, 중대백로, 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민물가마우지, 황조롱이, 물닭, 장다리물떼새, 댕기물떼새, 개괭,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흑꼬리도요, 중부리도요, 마도요, 학도요, 붉은발도요, 쇠청다리도요, 청다리도요, 알락도요, 뒷부리도요, 갯작도요, 노랑발도요, 꼬까도요, 쫓도요, 민물도요, 갯이갈매기, 재갈매기, 한국재갈매기, 멧비둘기, 물총새, 때까치, 큰부리까마귀, 제비, 종다리, 개개비사촌, 검은이마적박구리, 개개비, 찌르레기, 알락할미새, 발종다리, 방울새, 쇠붉은뺨멧새

조사 핵심종 이외에 확인한 멸종위기종의 달별 최대 확인 개체수는 아래와 같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개체수
1급	흰꼬리수리	0	0	0	0	0	0	0	0	2	2
	두루미	0	0	0	0	0	0	0	0	2	2
2급	큰기러기	0	0	0	0	0	0	5,300	177	30	5,300
	노랑부리저어새	3	0	1	0	0	0	0	28	5	28
	물수리	1	0	0	0	0	0	1	1	0	1
	잣빛개구리매	0	0	0	0	0	0	0	0	1	1
	새매	0	0	0	0	0	0	0	0	1	1
	매	0	1	0	0	1	2	0	1	0	2
	큰말뚝가리	0	0	0	0	0	0	0	0	1	1
	쇠제비갈매기	0	5	3	0	0	0	0	0	0	5

○ 종별 우점 현황

2023년 조사에서 관찰한 82종 중 가장 많은 개체를 확인(최대 개체수 기준)한 종은 민물도요로 30,800개체를 확인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최대 2,784개체(월 평균

1,032개체)가 관찰되어 민물도요 다음으로 많은 수가 도래한다. 저어새 역시 최대 609개체가 기록되어 생존수의 약 8%가 서식했다.

전체 관찰종 개체수인 165,047개체 대비 핵심종 7종에 대한 종별 우점도를 보면 알락꼬리마도요 12,389개체(7.50%), 큰뒷부리도요 2,109개체(1.27%), 저어새 1,445개체(0.87%), 검은머리물떼새 763개체(0.46%), 붉은어깨도요 421개체(0.25%), 검은머리갈매기 333개체(0.20%), 노랑부리백로 68개체(0.04%)로 확인했다.

#### ○ 가락지 부착 개체 확인 현황

2023년에는 가락지 부착 개체도 확인해 기록했다. 수하암, 서만도 등 영종도 인근 뿐만 아니라 남동유수지, 매도 등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 개체들도 확인했다. 아울러 2016년 호주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붉은어깨도요(3RZ)를 확인했으며, 2022년 대만에서 구조해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N34)도 송산유수지에서 6차례에 걸쳐 관찰했다. 저어새 이외에도 가락지를 부착한 큰뒷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를 송산유수지에서 확인했으며, 예단포와 준설토투기장에서 가락지 혹은 위성기를 부착한 저어새를 기록했다.

유독 송산유수지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를 많이 확인한 것은 송산유수지가 서식지로서 안정적인 것과 동시에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관찰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도 많은 수의 가락지 부착 개체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관찰한 가락지 구체적인 현황 별첨)

○ 지점별 도래 현황

■ 1지역(예단포 선착장, 미단시티)

① 지역 현황 : 예단포 선착장은 영종도 북동측에 위치한 항구로 작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다. 예단포 선착장의 넓은 물길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물새들은 만조가 되어 물이 차면 미단시티로 이동했다. 미단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매립되었다. 조사는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미단시티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졌다.

② 조사 결과 : 달마다 2회 조사 중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다. 저어새는 최대 72개체, 노랑부리백로 최대 36개체, 검은머리물떼새 최대 169개체, 큰뒷부리도요 최대 111개체, 알락꼬리마도요 최대 1,474개체를 확인했으며, 붉은어깨도요와 검은머리갈매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핵심종 이외에도 연중 합산으로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 2개체, 두루미 2개체, 2급인 큰기러기 30개체를 확인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 개체수	월별 최대개체수 합계
저어새	6	5	0	40	72	49	42	2	0	72	216
노랑부리백로	0	8	3	4	7	36	0	0	0	36	58
검은머리물떼새	32	11	12	42	122	169	132	10	0	169	530
큰뒷부리도요	8	111	0	0	14	0	1	0	0	111	134
알락꼬리마도요	183	174	670	1474	835	487	440	0	0	1474	4263
붉은어깨도요	0	0	0	0	0	0	0	0	0	0	0
검은머리갈매기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29	309	685	1560	1050	741	615	12	0		5,201

③ 기타 특이사항 : 갯벌에서 투망질 하는 사람을 여럿 관찰하기도 했다.(7월8일)

■ 2지역(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영종 동측)

① 지역 현황 :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곳이다. 영종대교를 기준으로(인천에서 영종 방향) 왼편에 위치한 곳은 제1준설토 투기장으로 투기를 완료한 뒤,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한상드림아일랜드로 개발, 공사 중이다. 영종대교 오른편에 위치한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17년 외곽 호안 축조 공사를 끝내고 현재 준설토를 투기 중으로 2030년까지 이용할 계획이다.

영종 동측 갯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갯벌 매립을 계획(영종2지구)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이 2018년,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를 최초로 확인하고,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한 결과 2020년 인천시가 인천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실천계획 수립 과업에 ‘영종갯벌 보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가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계획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조사 결과 : 달마다 2회 조사 중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다. 저어새는 최대 203개체, 노랑부리백로 최대 6개체, 검은머리물떼새 최대 104개체, 큰뒷부리도요 최대 250개체, 알락꼬리마도요 최대 2,041개체, 검은머리갈매기 최대 67개체를 확인했으며, 붉은어깨도요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핵심종 이외에도 연중 합산으로 멸종위기종 2급인 큰기러기 967개체, 노랑부리저어새 32개체, 쇠제비갈매기 8개체, 매 3개체, 물수리 2개체를 비롯해 잣빛개구리매, 새매, 큰말뚝가리 각 1개체를 확인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 개체수	월별 최대개체수 합계
저어새	17	203	161	27	39	73	43	8	0	203	571
노랑부리백로	0	0	1	3	3	6	1	0	0	6	14
검은머리물떼새	36	42	38	97	98	104	0	0	0	104	415
큰뒷부리도요	26	22	0	0	43	250	0	0	0	250	341
알락꼬리마도요	1134	52	65	405	458	2041	227	33	0	2041	4415
붉은어깨도요	0	0	0	0	0	0	0	0	0	0	0
검은머리갈매기	67	4	0	0	0	0	0	0	0	67	71
합계	1280	323	265	532	622	2474	271	41	0		5,827

③ 기타 특이사항 : 해안도로와 준설토 투기장 제방에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저어도의 일부 개체수를 확인했으며, 접근 가능 여부에 따라 확인한 개체수 차이가 났다. 만조시



준설토 투기장 내 유수지를 휴식지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안도로 쪽에 검은머리물떼새 둥지와 알을 관찰한 것으로 보아 번식지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지역(송산유수지와 영종남단 갯벌)

① 지역 현황 : 송산유수지는 씨사이드파크 내 유수지로 바닷물이 해안도로 및 수로를 통해 자연스레 유입되면서 갯벌이 형성되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② 조사 결과 : 달마다 2회 조사 중 최대 개체수로 기록했다. 저어새는 최대 152개체, 노랑부리백로 최대 12개체, 검은머리물떼새 최대 17개체, 큰뒷부리도요 최대 616개체, 알락꼬리마도요 최대 1230개체, 붉은어깨도요 최대 250개체, 검은머리갈매기 최대 101개체 확인했다. 조사 핵심종 이외에도 연중 합산으로 2급인 큰기러기 4,618개체, 노랑부리저어새 5개체, 쇠제비갈매기 2개체를 확인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 개체수	월별 최대개체수 합
저어새	21	31	35	109	114	152	100	26	3	152	591
노랑부리백로	0	1	1	3	3	12	9	0	0	12	29
검은머리물떼새	1	1	0	17	9	0	1	0	0	17	29
큰뒷부리도요	415	616	0	62	350	88	214	0	0	616	1,745
알락꼬리마도요	1230	1178	0	730	1010	760	300	73	0	1230	5,281
붉은어깨도요	123	250	0	0	11	37	11	0	0	250	432
검은머리갈매기	101	32	0	1	0	0	0	0	0	101	134
합계	1891	2109	36	922	1497	1049	635	99	3		

③ 기타 특이사항 : 송산유수지에 낚시 금지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객이 송산유수지 내로 진입해 낚시하는 경우 빈번했다. 최근 송산 방향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었다. 미디어파사드 야간 운영시 철새 이동과 휴식에 방해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4지역(홍대염전과 인천대교 우측 갯벌)

① 지역 현황 : 2022년 모니터링 결과, 송산유수지에 물이 차면 홍대염전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확인했으나 소유주인 LH에서 홍대염전 습지에 물을 제거하면서 습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② 조사 결과 : 달마다 2회 조사 중 최대 개체수로 기록했다. 저어새 최대 352개체, 노랑부리백로 최대 1개체, 검은머리물떼새 최대 36개체, 큰뒷부리도요 최대 129개체, 알락꼬리마도요 최대 1080개체, 붉은어깨도요 최대 2개체, 검은머리갈매기 최대 300개체 확인했다. 조사 핵심종 이외에도 연중 합산으로 2급인 물수리와 매를 각각 2개체, 쇠제비갈매기 3개체를 확인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대 개체수	월별 최대개체수 합
저어새	21	9	9	87	114	352	46	0	0	352	638
노랑부리백로	1	0	0	1	0	0	0	0	0	1	2
검은머리물떼새	4	18	36	36	6	1	0	0	0	36	101
큰뒷부리도요	129	67	0	0	65	94	0	0	0	129	355
알락꼬리마도요	1080	952	1	580	335	25	0	90	0	1080	3063
붉은어깨도요	0	0	0	0	2	0	0	0	0	2	2
검은머리갈매기	300	7	0	0	1	0	0	0	0	300	308
합계	1535	1053	46	704	523	472	46	90	0		4469

③ 기타 특이사항 : 홍대 폐염전은 2023년 5월부터 소유주인 LH측이 개발 예정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습지 내 물을 빼내며 습지 기능을 상실했다. 12월부터는 펜스로 가로막혀 개체 확인이 불가능했다. 습지 기능을 상실하며 4지점 조류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2024년 조사를 통해 2022년, 2023년 데이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분석 및 고찰

---

○ 이번에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과학자들은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년째 현장에서 생태교육과 모니터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영종갯벌의 가치를 확인, 기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조사지역이 영종갯벌 전체가 아닌, 동남쪽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전문기관의 조사 개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향성은 유사하다.

○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지역에서 확인한 조사 핵심 7종(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의 월별 최대 개체수 합은 총 17,528개체이다. 아울러 핵심종을 포함해 총 82종의 조류를 확인했으며 관찰 누적 총 개체수는 165,047개체( $n=18$ , 1회 평균 9,169개체, 범위 1,785~37,451개체)이다. 다만, 핵심 7종은 최대 개체수만 기록하는 방식과 달리 전체 개체수는 월 2회 조사 개체수 전체를 합산한 것으로 개체 합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 관찰한 82종은 조사지역에 한정된 종수로 내륙지역과 조사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연안 습지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종을 영종 일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거라 추정한다.

○ 영종갯벌에서 관찰한 물새류는 62종으로 각 종의 최대 관찰수를 기준으로 약 5만마리(49,608, 미확인 물새류 약 1만3천마리 제외)였다. 이는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기준 2만마리를 훨씬 초과하는 개체수이다.

○ 조사 핵심종 7종 이외에도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두루미,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 물수리, 잣빛개구리매, 새매, 매, 큰말똥가리, 쇠제비갈매기를 확인했다. 영종갯벌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에 있다.

○ 알락꼬리마도요는 각 지점별로 연간 합산 개체수 3,000~5,000마리로 고루 확인했으며, 단일 확인 최대 개체수는 2지역(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영종 동측)에서만 2,041개체(9월)였다. 전세계 32,000개체(IUCN,2016)의 약 6%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이다. 저어새는 최대 609개체를 확인했으며, 이는 생존수의 8%를 차지한다.

노랑부리백로는 1지역(예단포 선착장,미단시티)에서 가장 많이 확인했다. 검은머리물떼새도 1지역을 비롯해 2지역에서 각각 530개체, 415개체를 확인했다. 준설토투기장 조사 중 검은머리물떼새 동지와 포란하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준설토투기장을 비롯한 일대를 번식지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큰뿔부리도요는 3지역(송산유수지와 영종남단 갯벌)에서 가장 많이 확인했다. 붉은어깨도요는 1지역과 2지역에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4지역(홍대염전과 인천대교 우측 갯벌)에서는 단 2개체를 확인한 반면, 3지역에서 432개체를 관찰한 만큼, 붉은어깨도요 서식에 3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검은머리갈매기는 영종 남단 갯벌에 해당하는 4지역과 3지역에서 주로 확인했다.

○ 가락지를 부착한 개체도 별도로 기록했다. 특히 송산유수지에서 많이 확인한 것은 서식지로서 안정적이며, 거리상 관찰이 용이 했을거라 추정한다. 송산유수지는 교육과 연구 등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 하다.

## 제언

---

○ 흥대염전은 습지가 형성되어 많은 개체수가 도래하는 곳이었으나, 소유주인 LH에서 개발 예정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23년 5월부터 습지에 물을 빼는 것을 확인했다. 12월부터는 펜스까지 설치해 진입 및 개체 확인 불가하였다. 또한 송산유수지 내에 낚시객의 이용이 빈번하며, 최근 송산 방향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인해 야간 운영시 철새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계 기관은 서식지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야 한다.

○ 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한 영종 동측 일대는 검은머리물떼새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제1준설토 투기장은 비록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제2준설토 투기장은 향후 준설토 투기가 끝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아닌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영종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가 찾아오는 서식지이자 산란지이다.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등 핵심 갯벌을 추가로 등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 등은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강화, 장봉, 대이작, 송도를 비롯해 아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영종갯벌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치가 충분함을 확인했다. 인천시, 중구 등은 영종갯벌이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 대책을 비롯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갯벌의 가치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보호, 이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별첨. 가락지 부착 관찰 현황

종	가락지 부착 시기, 장소	가락지 번호 (right Tarsus)	확인장소	확인 날짜
저어새	2008년, 수하암	K79	송산유수지	7/6, 7/20
	2011년, 서만도	E47	송산유수지	7/20, 8/3, 8/17, 9/1
	2013년, 수하암	S39	송산유수지	4/20, 6/5, 6/19, 7/6, 7/20, 8/3, 8/17, 9/1, 9/14, 10/13
	2014년, 수하암	S58	송산유수지	6/19, 8/17, 9/1, 10/13, 10/27
	2014년, 남동유수지	S89	송산유수지	10/13
	2014년, 매도	S95	송산유수지	8/3
	2015년, 수하암	H10	송산유수지	7/6, 7/20, 8/3, 8/17, 9/1, 9/14
	2016년, 수하암	H70	송산유수지	5/3, 5/18, 7/6, 7/20, 8/17, 10/13, 10/27
	2016년, 매도	H66	송산유수지	4/20, 7/6, 7/20, 9/14
	2017년, 수하암	H97	송산유수지	4/8, 5/18
	2019년, 구지도	K25	송산유수지	10/27
	2019년, 매도	H90	송산유수지	7/20, 9/14
	2020년, 매도	Y01	송산유수지	4/8, 5/18, 7/6, 7/20, 8/3, 8/17, 10/13, 11/10
	2020년, 매도	Y33	송산유수지	8/17, 9/1
			준설투투기장	5/22
	2023년, 매도	70K	송산유수지	10/27
위성기 부착 개체	-	예단포	10/27	
2022년, 대만	N34	송산유수지	6/19, 7/6, 7/20, 8/17, 9/1, 10/13	
붉은어깨도요	2016년, 호주	3RZ	송산유수지	4/20
큰뒷부리도요	호주	번호 인식 불가	송산유수지	5/3
노랑부리백로	-	번호 인식 불가	송산유수지	9/1

\*별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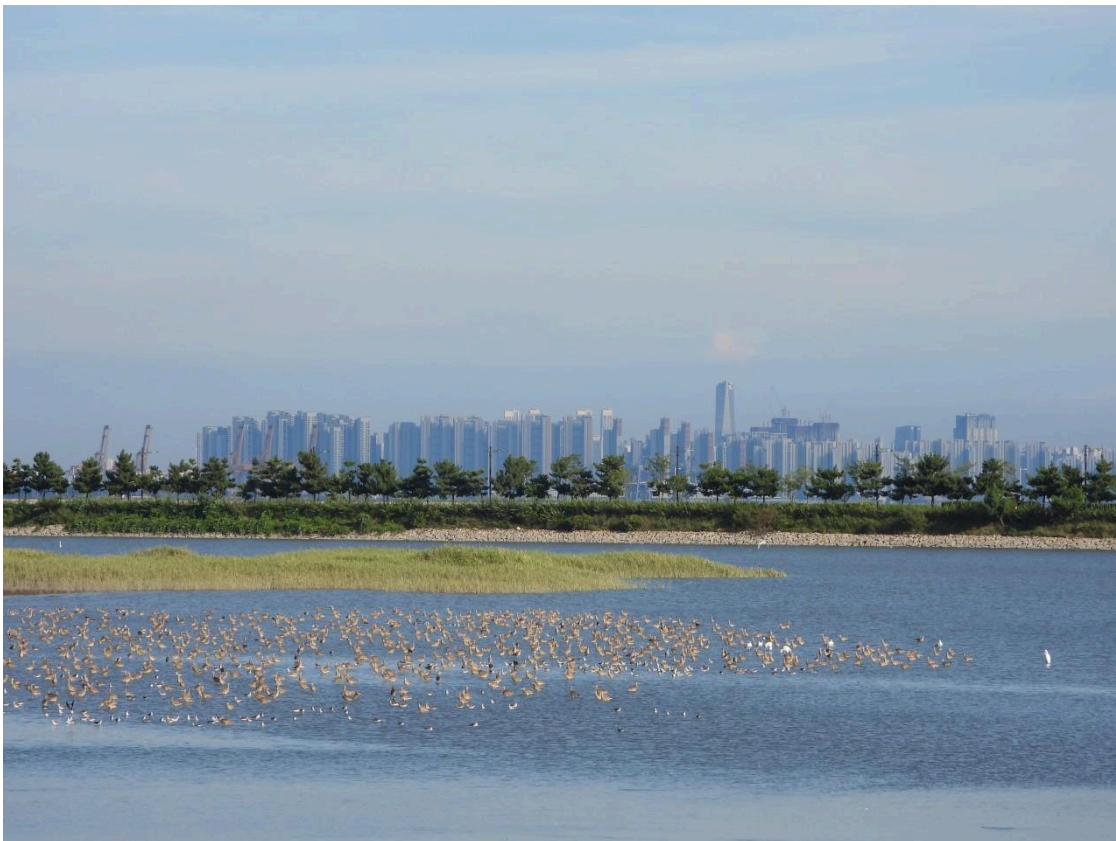
송산유수지



송산유수지에서 발견된 낚시바늘을 달고 다니는 검은머리갈매기



송산유수지





제1 준설토투기장 주변지역에서 포란 중인 검은머리물떼새



제1 준설토투기장



제1 준설토투기장



홍대염전



인천대교 남단



인천대교 남단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